



“꿈을 향한 도전으로 인생을 디자인 하세요”

맥지 강연차 광주 찾은 디자인 조서윤 대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동경만 갖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꿈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청춘이라면 저희 디원디자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디원디자인 조서윤(여·53) 대표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강조했다.

지난 3일(사)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 이하 맥지)이 주관한 ‘최혜자(最惠者)포럼’이 광주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많은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최혜자’정

신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은 시민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위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조 대표는 ‘민주화의 도시’지만 오랫동안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여수세계박람회에 저희 업체가 참여하면서 여수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광주는 처음이네요. 이곳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민주화운동이 떠오르며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은 낯선 공간이지만 맥지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이 환대해 주어서 따뜻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원디자인은 지난 1995년 직원 3명과 자본금 1

억 원으로 시작했다. 설립 10년 만에 연매출액 520억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14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는 업무공간을 디자인하지만 ‘사람을 위한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인간의 편의와 기업의 이념을 담은 디자인을 주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이를 간 사용에서 열린 해안보 정상회의에서 회의장 디자인을 맡아 실용성과 심미성을 함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흥국대 대학원에서 원광대 이강래 교수를 만나며 맥지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맥지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 특성화교육을 펼치는 맥지를 설명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제대로 둘보지 못하고,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던 조 대표는 이러한 ‘맥지정신’에 공감해 지난 2008년부터 법인이사를 맡아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물질상면으로 돋고 있다. 맥지 회원이 한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학생들에게 열정과 여유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하죠. 꿈이 없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은 실감할 수 없겠지만, 사회인이 되면 훨씬 더 바빠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청소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학창시절을 맘껏 누렸으면 좋겠네요.”

/임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태봉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가입 4주년

보성 출신 조규일·진도 출신 김영삼 화백

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보성 출신 서양화가 조규일(81) 화백과 진도 출신 한국화가 김영삼(56) 화백이 각각 제27회 예총 예술문화상 지역부문 대상과 예술영역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하는 예술문화상은 매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예술영역 부문과 지역 부문으로 나뉜다.

지역부문 대상에 선정된 조 화백은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사재 등을 보성군에 기부해 우리나라 최초의 군립미술관인 보성군립 백민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공헌했다. 또 30

여년 넘게 후학 양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고향에 머물면서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붓을 들고 있다. 최근 그의 작품 소재는 고향 풍경과 이웃을 비롯해 꽃, 여

인, 소녀 등이다.

조 화백은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한 것밖에 없는 상을 준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손과 발이 움직이는 날까지 작품을 그려, 많은 작품을 미술관에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조 화백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예술영역 미술부문 대상에 선정된 김 화백은 남도 문인화와 미술의 우수성을 전국에 퍼트리고, 후학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989년 ‘먹그림집’ 문을 열어 남도 문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먹그림’은 문인화의 옛 이름이다.

김 화백은 “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쁨



조규일 화백



김영삼 화백

보다는 부담이 앞서게 된다”며 “남도 문인화를 알리는 것은 저에게는 큰 보람이다. 즐거움이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미술인으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화백은 현재 한국예술원 문예창작학부 문화예술창작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아카데미홀에서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효성그룹 사보 보건복지부 장관상

효성그룹은 매월 발간하는 사보 ‘HYOSUNG’이 한국사보협회에서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내보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독특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조직문화 활성화와 대내외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0년 창간해 올해 10월 통권 400호를 돌파한 ‘HYOSUNG’은 매월 초 1만부가 발간돼 효성그룹 국내외 100여개 사업장에 배포돼 대내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최경주, 필리핀 구호 성금 1억원

프로골퍼 최경주(43·SK텔레콤)가 4일 태풍 하이ян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에 10만 달러(약 1억600만원)를 기부했다.

이 성금은 지난달 24일 결단 월드컵 골프대회에서 받은 상금이다. 이 성금은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에 전달돼 구호품과 복구비용으로 사용된다.

/연합뉴스

이수채 부회장, 소상공업진흥 국무총리 표창

“저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이웃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알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업진흥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한국이용기능장애인 이수채(62) 부회장은 약 50년간 이용사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 부회장은 화순 이양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살이 되던 1966년부터 지금까지 이용사로 활동하다 지난 1994년 가발업체를 설립했다.

“고객을 단정하게 가꿔드리려면 자부터 깔끔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가발은 가격도 비싸고 관리도 힘들어서 내가 직접 만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이용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조선이공대학 사회복지과를 입학한 그는 주말마다 학습, 나주, 고흥 등 전남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발봉사를 이어오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제열기자 h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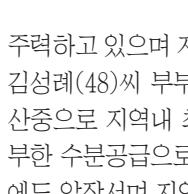
전남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하명수·안영옥 부부



장치혁·김성례씨 부부



하명수(48·안영옥(44)씨 부부(하안농장)는 시골로 귀농후 퇴직금으로 송아지 6마리와 1500평의 농지를 시작으로 영농에 종사해 현재는 3만평의 농지와 30두의 소를 사육하며 억대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무농약인증과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통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치혁(50·김성례(48)씨 부부(농부의 아내 농장)는 고품질 겨울 대파를 생산으로 지역내 최초 담수시설을 통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풍부한 수분공급으로 최고의 대파를 생산중에 있다. 또한 환경정화에도 앞장서며 지역민과 농야병, 비닐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폐 유플러를 수집해 농가에는 새 유플러를 교환해주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병수(광주·전남 언론인회 부회장)·봉순정(전 호남대 학술정보운영과장)씨 아들 민철(화천기공(주) 생산기획실)군 고재섭(전 화순동복중학교 교장)·기정순씨 딸 강(공무원)양=8일(일) 오후 2시 ST아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끌드홀 062-372-1000.

▲김연재(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 경감)·윤영옥씨 장남 명수(변호사)군 노광철·이봉희씨 장녀 정연양=7일 오후 1시30분 허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062-610-7000.

▲이재현·박길희씨 장남 선호군 조광석(서영대학교 겸임교수)·정민희(사회복지법인 베네스다요양원 원장)씨 장녀 한나양=7일(토) 오후 11시 50분 리페스타(구 메리어트) 웨딩홀 2층 엘루체홀 062-366-7766.

▲김길문(반·부·련 조직위원장)·이현숙씨 장녀 세종군 오명열·정경숙씨 장녀 지선양=7일(토) 낮 12시

30분 허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062-610-7000.

▲정 건(금산종고 교감)·민승복씨 장남 창운군 김종환·박영숙씨 장녀 연경양=7일(토) 오후 1시 20분 순천동부웨딩문화원 1층 사랑홀.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확대 이사회모임=5일(목) 오전 11시 인애동산 강당 062-672-9311, 010-6455-6296.

▲오세 광주전남동종친회(회장 오기만) 승모임=5일(목) 오후 6시 30분 더월비(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무등산 타워 10층) 010-3626-2129(오경교 사무총장).

▲입해정씨 광주전남 종친회·정광희 정기총회 및 송년회=6일(금) 오후 6시 이화웨딩캐슬 1층 010-7170-4056(정옥훈 사무총장).

▲진주강씨 광양시 종회(회장 강순행) 어울림 한마음 대회=7일(토) 오

전 10시 광양 청소년 문화센터 실내체육관 010-2610-5068.

▲(사)전주이씨 대동종양회원 광주·전남 지원원 이화희 월례회(회장 이승봉)=10일(화) 오후 6시 017-601-2266.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우)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재광보성중학교 동문회(회장 이금재) 제7회 동문총회=5일(목) 오후 6시 30분 그랑시아웨딩홀 5층(복구문암동) 070-4355-1678.

▲재광천중고 테니스월례대회=7일(토) 오전 9시 광주교育대학교 코트장 010-4851-3972.

▲재광별남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정기총회=9일(월) 오후 5시 30분 막가식당(광주일고 앞) 062-523-512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회생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질세 방 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인동등학교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차입 기회 제공. 광주 서구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 서구 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천환경농업사업단=고령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지원 100% =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

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 서구 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농성문화의 집 오전묘가 수강생 =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